

실새없이 이용자를 뽐내는 살아있는 도서관

송곡여고 열린도서관 가는 길

요즘 여고는 어떤 모습일까?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내내 예전 나의 여고시절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랬다를 하면서 요즘의 여고 모습을 상상했다.

송곡여고 근처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찾아가는데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교문을 들어선 순간 정겨운 학교 분위기가 확 밀려왔다. 교복을 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고생들의 모습에서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니 새삼 즐겁다.



〈송곡여고 열린도서관 입구〉

도서관은 2층과 3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 눈에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입구에서부터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예전에 학교도서관 몇 곳을 방문해 봤지만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의 도서관은 처음이었다.

역동적인 모습의 열린도서관

마침 우리가 방문한 때가 점심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도서관 한쪽 공간에서는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또 한쪽 공간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안내데스크에서는 실새없이



〈일본어 수업 중〉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지고 서가가 있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실새없이 서가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책을 집었다 들었다 뽑았다 했다. 도서관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흥미로운 공간을 발견했는데, 흔히 어린이도서관에



〈분주한 도서관〉

서나 볼 수 있었던 넓은 온돌방이었다.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의 온돌방은 어린이도서관과 비슷해서 쿠션을 베고 누워 책을 읽고, 배를 깔고 있고 누워 신문을 읽고, 친구들과 맘껏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광경은 자유로움 그 자체였다.

도서관탐방을 신청한 열린도서관의 지킴이 이덕주



〈온돌방 풍경〉



〈이덕주 사서교사〉

선생은 자리에 앉아있을 틈이 없었다. 분주하게 계속해서 도서관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우리가 말을 걸고 인사를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겨우 잠깐의 짬이 났을 때 쯤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마침 4월 한달 간 실습을 나온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생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용자가 너무 밀려드는 시간이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우선 우리 나름대로 도서관의 역동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열린도서관의 노하우와 열정

기존에 가보았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과는 다르게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은 매우 분주하다. 이덕주 선생 외에도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에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열린도서관을 이끌어어나가는 도서관 “서랑” 친구들이었다. 말로만 듣던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의 자랑 “서랑” 친구들의 활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은 의욕적인 사서교사와 도서관 “서랑”의 활동 때문에 마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도서관 인사들도 많았다. 직접 가서 체험해 보니 정말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은 자랑할 만 했다. 어느 외국의

시설 좋은 학교도서관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외형적인 시설이 아주 좋지는 못하지만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보물, 최고의 도서관 경영자들이 다 모여있는 “서랑”이라는 재원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노하우와 열정으로 뭉쳐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찾은 교과목 교사들〉

한참 분주했던 점심시간이 지나니 도서관은 다시 고요해졌다. 학생들이 모두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로 가고 나니 수업이 없는 교과목 교사들이 도서관을 찾아온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기 위해 사서교사와 상의하는 교사, 책과 멀티미디어 자료의 대출을 위해 찾아오는 교사, 조용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책을 보던 그 온돌방에 똑같이 앉아서 누워서 책을 보는 교사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간 사이 도서관은 교사들의 차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쉬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실재없이 밀려들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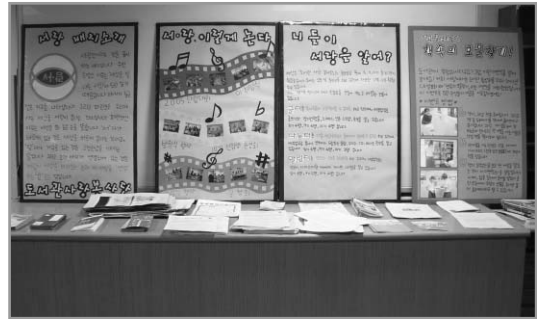
열린도서관 소개

우리도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간 사이 겨우 이덕주 선생과 문헌정보학과 교생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생겼다. 이덕주 선생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은 약 100평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서교사인 이덕주 선생과 도서관(서랑) 30여명이 운영하고 있다. 영상자료 5천종, 도서자료 2만부, 온라인자료 약 100만건, 정간물 40종이 있으며,



〈열린도서관 홈페이지〉



〈서랑 소개 게시물들〉

도서관에 영상편집장비와 원문제작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조직은 연구부장, 각 교과 주임, 사서교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로 이루어진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사랑봉사단("서랑")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이다. 대출은 학생은 1회에 최대 2권을 일주일간, 교직원은 1회에 최대 10권을 한달간, 학부모는 1회 최대 3권을 2주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이덕주 선생은 기본적인 설명 외에도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담은 동영상과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을 더 해주었다. 다양한 동영상 중 도서반 서랑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도서관 이용수칙에 대한 것은 여느 방송 광고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여고생들의 재치와 창의력, 생기발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열린도서관의 자랑 "서랑"

여러 활동으로도 늘 바쁘고 활발한 이덕주 선생은 송곡여고 도서관이 유명세를 탄 공을 모두 "서랑" 친구들에게 돌렸다. 그 날은 하루종일 서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학교도서관에서의 도서반은 꼭 필요하고, 많은 학교도서관에서도 서랑과 같은 동아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강조하셨을

거리는 생각을 했다.

서랑은 도서관사랑봉사단의 준말이다. 현 인원은 30여명 1,2,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느 동아리처럼 학기 초 홍보를 통해 모집하는데 동아리 구성원으로 뽑히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회원이 된다. 동아리 회원은 크게 나눔터, 글터, 알림터 세 개의 부서에서 활동하는데, 글터는 주로 자료구입 및 정리를, 나눔터는 자료 대출 및 반납을, 알림터는 도서관 게시판, 인터넷, 온·오프라인 등의 도서관 홍보 활동을 맡는다. 또 서랑에서는 각 학년을 책임지는 단장을 두고 있는데, 단장을 뽑는 방법이 매우 이색적이고, 학생회장 선거보다도 더 치열하다고 한다. 단장이 되기 위해 나온 후보자들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서랑의 선후배들이 하는 냉정하고 호된 질문에 정성껏 답변을 해야 한다. 주로 도서관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열정을 시험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단장을 뽑으니 서랑의 단장은 역동적이



〈단장 후보자들의 선거물〉

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서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 단장을 중심으로 학생들 스스로 결정한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의논할 일이 생기면 참여하기만 한다. 서랑의 회원은 모두 각자의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학생들 스스로 도서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서랑의 구성원들은 2004년에는 도서관리모델링 이벤트에 1등으로 선정되어 그들 스스로 리모델링에 성공했기에 그 능력을 내·외부적으로도 인정받았고, 도서관에 더욱더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누가 이들을 평범한 여고생이라고 할 것인지... 여느 새내기 사서들보다도 능숙한 모습으로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사서들을 말이다...

이용자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



〈도서관의 자랑 “서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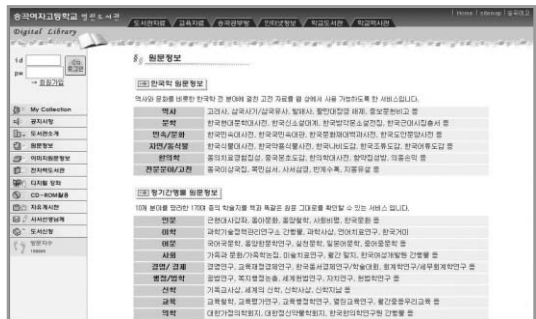
서랑을 처음 만든 이덕주 선생은 “이용자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서랑을 만들었고, 실제로 서랑 회원들에게 모든 도서관의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내부에서는 도서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용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에서는 다른 도서관 및 서점 탐방, 다른 학교 도서관 친구들과 함께 학교도서관살리기 운동 등도 한다. 서랑 회원들의 하루하루는 분주하다.

서랑 회원들은 스스로가 모두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학생과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성숙한 모습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 서랑의 이러한 모습이 이 학교 도서관의 자랑이요, 도서관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임에 틀림없다.

눈에 띄는 서비스

송곡여고 도서관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참고봉사가 눈에 띈다. 협력수업을 위한 지원, 심지어 교사들의 사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도 사서교사는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올해는 관심 있는 교사들과 함께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교육 및 학생상담에 대한 공부도 시작했다고 한다. 독서교육과 학생상담에 대한 공부를 통해 교사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민도 들을 수 있고,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도서목록을 만들고 실제로 교과목 수업에 활용하고 도서관 장서정책에 활용을 한다.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 이용 모습〉

여기에 한 가지 더, 교사와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의 원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교·내외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열람실도 별도로 두어 교육관련 간행물, 논문, 교육자료, 교과서, 참고서 등을 집중 배치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도서대출을 허용하고, 명예사서제도를 두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었다. 이 외에도 도서관은 아침10분독서운동, 책속의 보물찾기, 동화의 숨

겨진 뒷이야기, 독서토론, 도서관문화강좌 등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열린도서관의 비전

앞으로도 사랑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사랑의 사례가 다른 학교도서관에도 많이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송곡여고 열린도서관은 올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도서관정보대회의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방문도서관을 위해 영문홈페이지 제작과 자원

봉사자 모집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학습의 공간이 아니고 놀고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한다고 말하는 이덕주 선생은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좀 더 확장시켜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까지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심효정, 사진: 최인경)

5월에는 정다운도서관을 찾아갑니다.

• 사랑에 대한 미니 인터뷰 •



이종순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사랑 5기 단장, 현재 송곡여고에서 교생 실습 중)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리면 ‘사랑’에서 활동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 내 삶의 큰 변화를 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서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을 했다. 지금 모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며 사서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안정애(송곡여고 3학년, 사랑 9기 회원)



“책을 좋아해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심에 사랑에 들어왔는데, 정말 안 들어왔으면 후회했을 것이다. 동화작가가 꿈이고 최근 읽은 책 중에서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추천하고 싶다. 사랑 활동에서 가끔씩 어려움을 느낄 때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이용수칙을 잘 지키지 않을때이다.”



김민이(송곡여고 3학년, 사랑 9기 단장)

“사랑의 활동은 매우 보람된다. 힘든 점도 있지만 자발적 참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와 동일한 입장에서 학생들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도서관을 운영하기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다.”